

도, 탄소창업보육센터 증축 완료

부족했던 창업공간 확대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 기대

전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분야 창업 및 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탄소기술원) 탄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 증축공사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총 15억원(국비7.5, 도비3.75, 시비3.75)을 투입, 기존 18개실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에서 29개실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공간 부족으로 입주할 못 하였던 탄소분야 창업기업의 애로해소와 만성적인 입주체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현황과 결과, 입주 희망 창업기업 21개사중 5개 기업만 입주하여 탄소분야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간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전주시와 협력하여 탄소기술원 창업보육센터의 3층에 11개실의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게 됐다.

증축공사 완공된 단계로 접어든 지난 5월부터 탄소기술원에서 도내 창

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1개 창업기업으로부터 입주 희망신청이 접수되었고 사업계획과 기술수준 등에 대한 공개 평가를 통해 1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업입주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현 한국탄소기술원 테크비즈니스지원본부장은 "증축공사 추진시 기업 의견수렴과 타 기관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창업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회의실, 미팅룸, 휴식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해 창업기업들이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탄소

기술원의 보유장비와 기술역량을 활용한 기업지원을 통해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입주한 창업기업의 상품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노욱 전북도 탄소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입주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 탄소기술원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생명분야 기초연구능력 입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정부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이공학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 연구자들이 실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국가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생명소재연구원 팀 2명은 향후 3년간 매년 국비 1억 원씩을 지원받아 동충하초의 기능성 향상 및 항암효능 개선과 식물병원체 제어기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농업산업, 의약소재산업, 미생물산업 및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기업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산업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은 "한국연구재단 과제는 보통 기초연구능력이 있는 대학에서 독점적으로 과제를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농생명소재연구원의 기초연구능력이 이번 선정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연구를 확대해 농생명산업 발전에 산업화에 일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생활 속 안전무시' 전북도, 관행 근절 민간 추진체계 구축

전북도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생활 속에 뿌리 박힌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추진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비상구 폐쇄·물건걸치 등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 등과 함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나선다.

특히 지역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사람 중 약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양성해 안전점검을 벌인다.

또 오는 7월에는 도민안전다짐대회를 갖고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 고착화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고, 우리 이웃들에게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혁신도시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 협약
지역교육과정 협약을 갖고 있다.

19일 도청 점검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6개 대학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오픈캠퍼스

군산 유흥주점 화재 중상자 17명으로 늘어

도소방본부, 사상자 다수 발생 이유는 '단체 패닉'

지난 17일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 유흥주점 화재에서 중상자가 17명으로 늘어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상자 33명(사망 3명) 중 중상자가 17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직후 중상자는 6명으로 파악됐지만 병원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가 1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방당국은 통상 화재 뒤 72시간

안에 발생한 부상을 해당 화재 때문에 생긴 피해로 간주한다.

또 전북소방본부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단체 패닉(panic)'을 이유로 꼽았다.

음주 상태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출입구에서 불이 나자 주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해당 주점은 소화기 비치와 유도등 설치 같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갖췄다는 것이 소방당국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상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람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모두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상 전문 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만큼 쾌차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모(55)씨는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군산시 장미동 A(54)씨의 유흥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리승용 농진청장, 신규 지방농촌지도 공무원 대상 특강

리승용 농촌진흥청 청장이 신규 지방농촌지도 공무원들의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특강을 펼쳤다.



라 청장은 19일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 농촌진흥기관 신규 농촌지도공무원 공직가치 함양 특별 교육'에 참석, 특강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263명을 대상으로 '변화의 길에서 나비(飛)가 되라'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라 청장은 농촌 지도사의 이해와 중앙·지방 연계 사업 추진 방향, 농업·농산업 분야 경향 분석, 4차 산업혁명과 농업,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라 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과 적극적인 사고와 열정·도전·정성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관원 장수사무소 신설

지역 농업인과 소통 위한 현장 밀착형 농정역할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희, 이하 '전북농관원')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3층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지역 농업인과 소통 및 농정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19일에 장수군·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생산·소비자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소 기념식을 갖고 장수지역의 농정현안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 교환을 시간을 가졌다.

장수사무소의 신설로 전북농관원은 앞으로 생산자, 소비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 협의회(도단위), 시·군 단위 이·

통장 대표가 참여하는 권역별 농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여론 주도성과 소통강화로 농정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장협의회, 농업인단체, 이장 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요 농정현안 및 성과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농정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농정의 신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친환경·GAP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 등 농관원의 주요 업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시 공유하여 현장농정 중추기관으로서 역할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장수=교관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